

공을 잡고 싶었습니다"

서울 삼성은 화요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양구 U10 예선 KCC 2024 KBL YOUTH CLUB 농구 챔피언십에서 창원 LG를 29-6으로 꺾었습니다. 이 팀은 4전 전승으로 예선 리그를 마무리했습니다. 준결승에서 A조 2위 팀과 맞붙습니다.

최준호(142cm, G)가 차이를 만들었습니다. 최준호는 LG와의 경기를 10득점 7리바운드 3스틸 2어시스트로 마무리했습니다. 또한 양 팀 선수 중 가장 많은 득점과 리바운드를 달성했습니다.

최준호는 경기 후 "수비가 잘 된 것 같다. 하지만 리바운드가 잘 되지 않았다"고 말했습니다.

최준호는 리바운드에 실망했습니다. 하지만 최준호의 실망은 옳지 않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준호는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기록했습니다.[카지노사이트 모음](#)

운이 좋을 때도 있지만 공격 리바운드는 결단력과 예측력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기록입니다. "점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. 예측을 잘 못하지만 잡고 싶습니다."라고 최 감독은 공격 리바운드의 비결을 설명했습니다.

그 후 그는 "잘 돌파하고 싶고, 득점도 잘하고 싶다. 수비도 잘하고 싶다"고 말했습니다

한편 삼성은 예선 리그에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. 예비 선수처럼 뛰면 더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. 최준호는 또한 "예선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했다. 준결승에서도 잘하고 싶다. 적어도 준우승에 도전하고 싶다"고 말했습니다. 리바운드를 위해 높이 뛰는 만큼 팀도 높이 도약하고 싶었습니다.